

노동관계 총서-노동쟁점나눔 4

행복한 노동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행복한 노동

펴낸 날 2013년 11월 17일

지은 이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우)136-085 서울 성북구 보문로 95(보문동5가)
전화 · 02-924-2721
팩스 · 02-924-6252
<http://nodongsamok.co.kr>
e-mail: nodong@catholic.or.kr

펴낸 곳 삼토피아출판사
(우)136-856 서울 성북구 정릉로10길 71(정릉동)
전화 · 02-742-9600
팩스 · 02-745-3114
등록일 2011년 1월 25일
등록번호 제307-2011-8호

비매품

ISBN 978-89-967645-4-0 03230

이 책을 펴내며...

저희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2010년부터 해당연도의 노동 현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를 선정하여 이를 교회의 가르침에 비추어 집중 연구·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토론자와 참가자들이 질의를 하고 발표자들이 응답하며 다양한 대안을 도출하는 ‘노동 쟁점 나눔’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눔의 주제는 ‘노동자의 행복’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노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은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수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도 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고를 하는 데에서 보람과 기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행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노동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믿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과 노동의 문제에 관하여 첫 번째 발제자인 조은상 박사는, “현대 세계의 전체적인 인간 상황은 ‘인간의 노동에 관한 새로운 의미들’을 찾아낼 것을 요구”(노동하는 인간, 제2항)하고 있다는 교회의 가르침을 전제로 행복과 노동에 대해서 고찰할 것입니다. 그 다음 직장이 노동자에게 행복한 곳이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행복한 노동자가 되려면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고,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양성되어야

하는지도 제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공동체와 행복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정영화 교수님께서, 생전에 사목 활동의 대부분을 노동자들과 그들의 행복한 노동을 위해 힘 쏟으셨던 도요안 신부님과 용동진 신부님의 삶과 영성에 대해서 탐구합니다. 두 분의 실천적인 삶과 영성을 고찰하는 과정을 통하여 왜 두 분 신부님들께서 “노동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노동자야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드러날 것입니다.

늘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이 어려운 작업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조은상 박사님, 정영화 교수님, 그리고 이분들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 주신 저희 전문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풍성한 축복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저희 노동사목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저희들 하는 일에 대한 따끔한 충고와 따뜻한 격려도 아끼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3년 11월 17일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장경민 신부

차 례

발간사

이 책을 펴내며 · 3

〈기초 발제 1〉

노동자의 행복 · 7

1. 들어가는 말 · 9
 2. 행복의 정의와 행복학의 대두 · 10
 3. 노동과 행복 · 14
 4. 행복한 일터의 조건 · 17
 5. 행복한 노동자의 자질 · 22
 6. 행복한 노동자의 양성 · 30
 7. 경제 공동체와 행복 · 34
 8. 맺는 말 · 37
 - ※ 사회 교리와 나 자신을 연결해 보기 · 39
 - ※ 행복한 노동자의 자질 체크리스트 · 40
- 참고 문헌 · 42

〈기초 발제 2〉

한국 가톨릭 영성의 스승 · 노동사목의 개척자: 고 도요안 신부 · 45

1. 들어가는 말 · 47

- 2. 그리스도인의 영성 · 49
 - 1) 영성의 정의와 모델 · 49
 - 2) 영성의 육화 · 51
 - (1) 하느님 체험의 표현인 영성 · 53
 - (2) 세상을 향한 투신인 영성 · 54
 - (3) 억압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향한 회개 · 56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 3.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과 가난 · 57
 - 1) 참 행복의 정의 · 57
 - 2) 가난한 사람과 참 행복 · 60
- 4. 나가는 말 · 62
- 도요안 신부의 번역 및 발간 문건 목록 · 64

〈기조 발제 3〉

행복한 노동자로서 고 용동진 신부 · 67

- 1. 들어가는 말 · 69
- 2. 행복한 노동자 용동진과 도요안 신부의 만남 · 71
- 3. 노동 사제로서 용동진의 삶 · 73
- 4. 나가는 말 · 75

노동자의 행복

1. 들어가는 말
 2. 행복의 정의와 행복학의 대두
 3. 노동과 행복
 4. 행복한 일터의 조건
 5. 행복한 노동자의 자질
 6. 행복한 노동자의 양성
 7. 경제 공동체와 행복
 8. 맺는 말
- ※ 사회 교리와 나 자신을 연결해 보기
 - ※ 행복한 노동자의 자질 체크리스트
- 참고 문헌

조은상(전문위원)

1. 들어가는 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은 행복하다.¹⁾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한결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물질주의의 영향으로 돈이 마치 행복의 척도인양 여겨지는 경우도 있지만, 복권에 당첨되어 수십억의 돈을 횡재한 사람들이 몇 년 후에는 행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참한 삶을 산다는 조사 결과는 돈=행복이라는 수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러한 물질 중심의 현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1인당 소득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21세기에는 단순한 소득보다는 삶의 질과 웰빙(well-being), 즉 행복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²⁾

신자유주의가, 우리가 사는 일상의 거의 모든 영역을 침투하여 성과를 중시하는 경향과 더불어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양극화 현상을 강화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³⁾ 그리고 노동은 생존을 위한 삶의 방편으로써 임금과 고용 조건에 초점을 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

-
- 1) 마태오 복음 5장 3-10절 참조. 루카 복음에서는 가난한 사람, 지금 굶주린 사람, 지금 우는 사람, 사람의 아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내어 쫓기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쓴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다.
 - 2) OECD준비기획단, 성장 중심에서 행복한 미래로, 한눈에 보는 제3차 OECD 세계 포럼, 통계청, 2009, 256쪽 참조.
 - 3) 아나톨 칼레츠키 지음, 위선주 옮김, 자본주의 4.0, 컬처앤스토리, 2011.

제2항에서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현대 세계의 전체적인 인간 상황은 ‘인간의 노동에 관한 새로운 의미들’을 찾아낼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점에서 “노동의 주체, 즉 ‘일을 성취하는 개인’인 그 인격체의 ‘존엄성의 정도’에 따라 각각의 노동은 평가되어야 한다.”(노동하는 인간, 6항)는 각도에서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 “사회 문제의 핵심”(노동하는 인간, 2항)을 차지하는 노동을 행복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행복의 정의와 행복학의 대두 그리고 노동과 행복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 다음에 일을 하는 직장이 자아실현의 장소, 곧 노동자에게 행복한 곳이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살펴본다. 또한 행복한 노동자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갖추어야 하는지, 또한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양성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경제 공동체와 행복을 언급하며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2. 행복의 정의와 행복학의 대두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학문이 발달하여 인체의 신비를 연구하는 나노(nano) 과학에서 광활한 우주를 탐험하는 우주 공학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으로 접근하였지만,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접근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가 행복에 대한 견해를 발표한 이래 많은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행복론에 대하여 이야기했지만, 행복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접근은 최근에서야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인류의 스승 철학자, 사상가들이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Nicomachean Ethics*)⁴⁾에서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고 하면서 행복이란 인간의 최고선이라고 말하

4) 아리스토텔레스 지음, 이창우·김재홍·강상진 옮김,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제이북스, 2006.

고 있다. 그리고 행복에 이르는 세 종류의 선으로서 첫째, 도덕적이고 지적인 덕과 교육을 비롯한 영혼의 선, 둘째로 힘, 건강, 아름다움, 건전한 정신 같은 신체적인 선, 셋째로 부, 친구, 좋은 가문, 훌륭한 자식들, 좋은 혈통, 훌륭한 평판 같은 외적인 선을 들고 있다. 행복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성에서 답을 찾고 있다. 탁월성이란 교육으로 습득되고 스스로 노력함으로써 완전해지며 중용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다. 우리가 탁월성의 덕목들을 습관을 통해 가다듬고 그것을 이성적 실천을 통해 발휘할 때 가장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다.

스토아(Stoa) 철학자이자 네로(Nero) 황제의 가정교사요 고문이었던 세네카(Lucius Annaeus Seneca)는 행복한 삶이란 자연과 조화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였다. 건전한 정신을 갖고 용기 있고 활기차게 살면서, 돌발 상황에도 침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몸을 소중하게 여기며, 덕을 단 하나의 중요한 선으로 알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보았다.⁵⁾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Hipponensis)는 『행복론』(*De beata vita*)에서 하느님과 함께 있는 자는 누구나 행복하다고 말하였다.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분을 진리로, 여러분이 누리는 진리의 본성으로, 여러분과 최고의 척도를 잇는 끈으로 이끄는 유일한 존재를 경건하고 완전하게 인정하는 게 행복한 삶이다.”⁶⁾라고 행복을 하느님과 관계로 파악하여 결론을 내린다.

토마스 데 아퀴노(Thomas de Aquino)는 『신학대전』(*Summa Theologiae*)에서 완전한 행복과 불완전한 행복을 구분하고 있다. 즉,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그리스도교의 덕과 더불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덕을 실천하면서 사는 이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불완전한 행복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토마스 데 아퀴노는 궁극적이고 완전한 행복이란 신의 본질을 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5) 시셀라 북 지음, 노상미 옮김, 행복학 개론, 이매진, 2010, 참조.

6) 시셀라 북, 같은 책에서 재인용.

하지만 최근의 신학 이론에 의하면, 지상에서 누려야 할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시하면서 현세에서 누리는 행복 체험을 중요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삶 속에서 누리는 일상적인 행복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며, 이는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 속에서 누리는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행복학이란 학문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가? 언론에서 행복학 강사라는 말은 있으나, 실제로 행복이라는 주제를 갖고 연구하는 분야는 최근 인간의 의식과 행동, 정신 장애를 연구한 심리학에서 태동했다⁷⁾고 볼 수 있다. 1998년 미국심리학회장으로 취임한 마틴 셀리그먼(Martin Seligman)은 몰입(flow)의 연구로 유명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 성격적 강점과 덕성의 연구자인 크리스토퍼 피터슨(Christopher Peterson) 교수, 주관적 안녕 연구의 선구자인 에드 디에너(Ed Diener) 교수 등과 함께 긍정 심리학을 태동시켜서 인간의 행복과 강점을 본격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러한 여파로 하버드대학교에서 행복학 강의를 시작되고, 클로어몬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교에서도 긍정 심리학 석사 과정이 개설되었으며, 영국에서는 고등학교 교과목에 행복학이 들어갔다⁸⁾.

긍정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셸돈과 킹(Sheldon & King, 2001)⁹⁾은 평범한 사람들이 더욱 잘 활동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며 자신의 삶을 향상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긍정 심리학은 “타고난 적응 능력과 학습한 기술들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역경에도 불구하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하는

7) 마틴 셀리그먼 지음, 김인자 옮김, 긍정심리학, 서울물푸레, 2006; 레오 보만스 엮음, 노지양 옮김, 세상 모든 행복, 흐름출판, 2012 참조.

8) 조은상, 행복지수와 인재개발, working paper 201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참조.

9) Sheldon, K. M., & King, L. (2001). Why positive psychology is necessary. American Psychologist, 56, 216-217.

물음을 탐구한다.

소냐 류보머스키(Sonja Lyubomirsky) 등(2005)¹⁰⁾은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을 고려하여 행복의 등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text{행복} = \text{행복 기준점 (50\%)} + \text{삶의 상황 (10\%)} + \text{의지적 활동 (40\%)}$$

행복은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요인으로 결정되는 행복의 기준점이 50%를 좌우한다. 주변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항상 웃음이 많고 낙천적인 데 비해 또 어떤 사람은 항상 걱정이 많고 비관적이거나 분노가 많아 폭발하는 경향이 높은 사람이 있다. 긍정적이고 유머가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10%는 삶의 상황이다. 이는 나이, 성별, 교육수준, 사회적 계층, 수입, 가족 및 자녀, 지능 수준, 신체적 매력도와 같이 행복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인 여건들을 의미한다.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나머지 40%는 의지적 활동으로서 개인의 동기와 의지로 선택된 자발적인 활동들을 의미한다. 우리가 교육이나 훈련으로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이므로 내 마음 먹기에 따라 행복감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우리의 행복 수준은 우리가 쉽게 바꾸지 못하는 유전적인 요인이나 내가 처한 삶의 여건보다 내가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의지적 활동에 의해 좌우된다. 다시 말하면, 유전적인 요인은 행복에 50% 정도는 영향을 주지만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반면, 삶의 상황은 10% 정도 영향을 주나 이 또한 쉽게 바꾸는 것이 힘들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행동할 수 있는 의지적 활동은 40%의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혼인 생활을 통하여 기쁨을

10) Sheldon, S., Sheldon, K.M., and Schkade, D. (2005), Pursuing happiness: The architecture of sustainable chang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9, 111-131.

누리고, 직장 생활을 통하여 성취감을 느끼며, 여가 활동을 통하여 즐거움을 만끽하고, 또 종교 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행복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빅터 프랭클(Viktor Emil Frankl)이 『죽음의 수용소에서』(*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¹¹⁾라는 자기 저서에서 말하듯이, 비록 수용소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삶의 의미와 의지가 분명하다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경쟁과 독식, 분노와 비난 등이 팽배한 사회에서 새로운 행복에 대한 의지로 행복을 증진하는 곳에 초점을 두고 나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신뢰, 존중, 공감, 협동, 활기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칠 것이다. 또한 사회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고 동료애를 발휘하여 열정과 협동심, 창의력, 잠재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면 사회 전체에 활기와 에너지가 넘치고 생산성이 증대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 수준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3. 노동과 행복

조선 시대는 500여 년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노동은 귀한 일이라기보다는 힘들고 천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신분 사회의 구분 역시 선비의 공부를 첫째로 치고 농사, 공장에서 하는 생산 활동, 상업 활동의 순으로 매겨서 사람의 먹을거리를 위한 농사는 그나마 중시하였지만, 돈을 벌기 위한 공장 활동의 노동은 품위가 없는 것으로 치부하였다. 서구의 역사 역시 비슷하여 그 뿌리가 되는 성경에는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대가로 가족을 위해 땀을 흘리는 노동을 하는 벌이 주어졌다. 노동은 비록 가족을 먹여 살리는 수단이었지만, 한 마디로 고역에 지나지 않았고 기

11) 빅터 프랭클 지음, 이시형 옮김, 죽음의 수용소에서, 청아출판사, 2005.

쁨의 원천이나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요한 바오로 2세는 원죄 이전의 노동은 즐거움이며 보람이었는데, 원죄 이후의 노동은 보람보다 괴로움이 부각되었다고 해석하였다.

이처럼 동서양에서 노동이 갖고 있는 힘들고 천하며 고역이란 개념이 행복한 노동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노동에 대해 가진 기본 의식이 변화할 때 비로소 가능하지 않을까?¹²⁾

첫째, 노동은 그것이 청소부의 노동이든, 사무직의 노동이든, 전통 시장의 자판 장사가 하는 노동이든 우리 사회를 정상적으로 돌리게 하는 작은 틈날 바퀴처럼 소중한다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누군가 새벽에 거리를 청소하지 않으면, 길거리에 넘치는 쓰레기 더미에서 어떻게 정돈되고 품위 있는 도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전통 시장의 1평 남짓 되는 자판에서 두부를 만들어 파는 사람의 노동이 없으면, 어떻게 옛날식의 두부를 맛볼 수 있을 것인가? 또 자동차 정비소에서 땀을 흘리며 수리하는 정비공의 노동이 없으면, 자동차가 고장이 날 때 누구에게 차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

둘째, 같은 노동을 할 때에도 일의 의미와 소명을 깨닫고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유럽의 한 성당에서 벽돌공들이 벽돌을 쌓고 있었다. 그 벽돌공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묻자, “보시다시피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다른 벽돌공에게 같은 질문을 하자, “저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똑같은 질문을 받은 세 번째의 벽돌공은 “저는 천 년 이후의 후손들에게 보여 줄 위대한 예술품인 성당을 짓기 위한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같은 일을 하지만 누가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노동하고 있을까? 말할 필요도 없이 자신이 쌓는 벽돌이 천년 이상 지속될 예술품인 성

12) 실제로 요한 바오로 2세를 비롯한 역대 교황들은 노동의 동기를 생존 유지와 자아실현으로 설명한다: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노동하는 인간 참조.

당의 한 부분이라고 믿는 벽돌공이다.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깨닫고 나의 소명을 제대로 깨달을 때 아무리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더욱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공자는 “오십지천명”(五十知天命)이라고 했다. 나이가 오십이 되었을 때 천명을 안다는 뜻이다. 공자 자신도 자신의 나이 오십이 되어서야 천명을 알았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지만, 그 전에 자신의 천명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자신의 소명을 안 사람들은 대부분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니 그 과정 중에 기쁨을 느낄 뿐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해서도 행복감을 느낀다.

셋째, 노동할 때의 집중과 몰입¹³⁾에 따라 일이 주는 기쁨과 행복감이 차이가 난다. 설렁 설렁 하는 노동은 그저 그런 만족감과 결과만을 가져 온다. 하지만 제대로 집중하고 몰입하는 노동은 그 과정 중에 짜릿한 기쁨과 쾌감을 가져다준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이론에 따르면, 몰입은 행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이때 몰입이란 어떤 것에 완전히 빠져서 시간이 마치 순간처럼 지나가며, 배고픔이나 자의식 같은 것을 잊어버릴 정도의 경지를 말한다. 몰입을 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즐거움, 행복, 능력, 동기 부여, 존재감, 낙관, 미래지향성을 가져 적극적으로 되고 열정을 갖는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가 재미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교사들이 진작 해 주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강도 높은 몰입을 경험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일에 재미가 없다고 한다면,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13) 몰입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2005)의 flow(몰입)에 의하면, 행위에 깊게 몰입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릴 때를 일컫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한편, 교회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는 투신이란 용어가 있는데, 정의를 위한 투신, 평화를 위한 투신, 공동체 운동에 투신하다는 등으로 쓰인다. 이 용어는 지향해야 하는 가치나 신조, 삶의 방식에 공감하여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그것에 바치는 것을 말한다. 이 글에서는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의미로 볼 때 투신보다는 몰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필자 주.

필요하다. 노동자가 일에 몰두하면 관리자가 일을 관리하거나 통제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넷째, 이상과 같이 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노동의 귀천에 상관없이 노동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노동에 대한 소명감으로 몰입을 통해 기쁨과 행복감을 맛본다면, 다시 말하면 노동을 통해 존재감을 확인하거나 자아를 실현한다면, 이 세상의 노동은 그야말로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된다. 하지만 수천만 명의 노동자들이 그들의 노동의 대가가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 데도 못 미치고,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에 노동하면서 적절한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은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노동자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안이라고 교회의 사회 교리는 가르치고 있다. 임금 노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늘날, 노동에 대하여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최소한의 경제 사회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¹⁴⁾

4. 행복한 일터의 조건¹⁵⁾

노동자의 경우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은 다름 아닌 일터이다. 노동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우선 행복해야 한다. 일터에서 행복하게 일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삶의 일부분만 행복하기 때문이다. 행복을 오랜 기간 연구한 긍정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크리스토퍼 페터슨(Christopher Peterson)은, 행복이

14)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노동하는 인간 참조.

15) 필자가 상정한 다섯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일터는 행복한 일터이나, 오늘날 이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직장이 얼마나 될지? 특히 다섯 번째 조건인 고용을 보장하는 직장이 희소하다. 행복한 일터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관계에서 온다고 단적으로 말한다. 행복이란 삶의 그림에는 사람이 풍경이 되며, 만족한 삶은 관계가 풍부한 삶이라는 것이다. 직장을 이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사나 동료와 관계가 힘든 경우이다. 매일 얼굴을 맞부딪히고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상사와 의견 충돌이 많고, 동료와 사사건건 부딪히기만 한다면 일이 재미있을 리 있으며, 일에 집중할 수 있는가? 행복한 직장이기는커녕 지옥과 같은 직장이기 십상이다. 우리가 하는 일에 몰입하고, 매일 직장에 가고 싶게 만드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멋있는 건물, 높은 임금인가? 아니면 직장에 출근했을 때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나와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가?

행복한 일터의 가장 큰 조건으로는 동료 혹은 상사와 좋은 관계이다. 나를 인정해 주는 단 한 명의 사람이 있다면 일을 해도 보람이 있고 신이 난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사사건건 시비 걸고 트집 잡는 상사가 있다면 도대체 일할 맛이 있겠는가? 마치 저승사자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시비를 거는 것과 다름이 없다. 상사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시시비비를 따질 때 며칠 정도는 버틸 수 있으나, 점차 일 자체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을 그만 두어 마침내 그 직장을 떠나려고 궁리할 것이다. 어찌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그 상사가 노리는 바가 아닐까? 함께 일하는 동료와 마음이 맞으면 세상이 부러울 게 없으며, 자신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헤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필자가 첫 직장생활을 하던 1980년대 초에 타자가 주 업무이던 여직원이 있었다. 벌써 오랫동안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눈치도 빠르고 타자 속도가 뛰어나 그 분야의 1인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신입 직원인 필자가 부탁하면 벌써 그 작업이 결재를 받을 것인지 아닌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결재될 것 같지 않으면 금방 일을 처리해 주지 않아 나로서는 답답하여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필자뿐 아니라 다른 부서원들의 경우도 비슷한 마음고생을 많이 하여 함께 일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그런데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여 그 여직원 생일 케이크를 사서 함께 먹고 칭찬도 하고 나자, 그 직

원의 쌀쌀한 태도가 사라져 그 후 일하는 것이 얼마나 쉬워졌는지 모른다. 그 여직원은 정말로 자신의 재능, 달란트, 소질을 알아주는 사람, 자신을 제대로 인정해 주는 상사를 만나서 신바람이 났고 참으로 행복해 하였다.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상사였기 때문에 부서의 실적이 배가되었고, 그 후 직장에서 인정 받는 사람이 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행복 일터의 둘째 조건은 행복 에너지를 발산하는 아름다운 환경이다. 몰입할 수 있는 조건을 방해하는 공장이나 사무실의 환경 역시 개선할 수 있다. 소음이나 먼지가 지나치거나 햇빛이 지나치게 부족하여 어두침침하고 습기 있는 환경은 물리적으로 일하기 힘들고 몰두하기도 힘들다. 기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일차적이고 그 다음이 환경공학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일하는 곳이 깨끗하고 잘 정돈된 곳은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오래 일을 해도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잠시 있을 뿐 곧 떠날 생각을 하게 된다. 일전에 택배업체에 물건을 부치러 갔다. 1층에는 상자들로 가득차서 그러려니 여겼는데, 2층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뿐 아니라 사무실은 청소도 안하여 먼지투성이 그 자체였고, 사무실 안에도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데다 냄새가 고약해서 당장 나오고 싶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2명의 사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곳은 오래 머물 곳이 아니구나!’라고 느꼈다. 실제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지금의 일터는 잠시 일을 하고 떠날 곳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지저분한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터에 대한 자부심이나 일터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한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쓰레기 냄새나 먼지 등으로 인해 생산성도 그리 높지 않을 것이 틀림없었다. 그곳을 나왔지만 한 동안 악취로 인해 머리가 아파 신선한 공기를 쐬고 나서야 잠시 다녀 온 그 곳의 악취로부터 해방되었다.

일터가 종업원의 긍지와 생산성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간파한 미국의 가구 제조업체인 허만 밀러 사(Herman Miller Inc)는 회사 건물을 신축할 때에 실용성뿐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였다. 이 회사의 건축을

맡은 건축사는 “사람들이 갖는 일터에 대한 느낌이 그들의 사기에 영향을 주고, 사기는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 사람들의 경험을 빛나게 하고, 더불어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성공의 적절한 단계가 아닐까 싶다. 일터는 기쁨을 표현하고 열정을 구현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허만 밀러(Herman Miller)의 디자인 철학을 표현하였다. 아름다움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에너지를 가장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심오한 지혜가 저절로 솟아나게 하며, 우리의 소중한 감정을 한데 묶어 주면서 인간의 정신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명품 기업들은 일터를 행복한 에너지로 가득 차게 하려고 노력한다.

행복한 일터의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는 직장이다. 우리가 하는 다양한 일 중에 어떤 일은 매우 사소하고 어떤 일은 매우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일에도 단순한 일이 있고 복잡한 일이 있으며, 그냥 그런 일이 있고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일이 있다. 몰입할 수 있는 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모든 일에 몰입할 수 있다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는 것이고, 몇 가지 일에만 몰입을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절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제약될 것이다. 봉투에 우표를 붙이는 일에 몰입할 수 있다면 단순한 일이지만 행복감은 배가되고, 거리 구석구석 쓰레기로 지저분한 곳을 치우는 일에 몰입할 수 있다면 청소부로서 행복감 역시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사무직이 행정을 처리하는 일에 몰두하여 잘 처리하면 그 일에 행복감을 느낀다. 어쩌면 일 자체에서 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자의 몰입 의지와 경험에 달려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몰입에 대한 경험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공장에서 조립하는 공정에서 매우 단순한 일을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몰입 상황을 유도하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몰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핀 제작 공정에서 핀을 구부리고, 뒤트는 과정을 노동자 한 명이 수행하는 과업으로 할당하는 등 몇 가지 유사한 공정을 통합하는 것이 몰입을 초래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이 공정을 재개편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행복한 일터는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해 주는 곳이다. 공자는, 만물이 다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기업이 종업원으로 하여금 모든 인격을 다 투신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미적 차원을 포함하여 총체적인 범위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최대한 제공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주변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일터에서 소극적인 아름다움과 적극적인 아름다움을 이해할 때 동기 부여라는 어려운 문제를 매우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일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되는 곳이다. 2013년 현재 한국에서는 50%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에 해당된다는 통계가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임금과 근로 시간 그리고 고용 조건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사회적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실업은 사회의 근간을 해치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고용의 창출과 유지는 행복한 일터뿐 아니라 행복한 사회의 기본 조건이 된다. 스페인의 몬드라곤(Mondragón) 협동조합 복합체¹⁶⁾는 유럽의 경제 위기에서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시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혁신을 통한 수익 증대 등을 강조하면서도 고용 창출이 기업의 제1의 목표인 몬드라곤 협동조합과 같은 기업의 가치와 제도를 한국 토양에 접목하는 것이 행복한 일터를 많이 늘리고 나아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통과로 청년층, 노동자 그리고 지식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앞으로 협동조합이 기존의 중소기업뿐 아니라, 미래의 창업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되어 협동조합을 통해 물질 위주의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

16) 김성호, 몬드라곤의 기적, 행복한 고용을 위한 성장, 역사비평사, 2012 참조.

대되지만 이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5. 행복한 노동자의 자질

행복한 일터에는 당연히 행복한 노동자가 있지 않겠는가? ‘행복을 국가의 제 1 사명으로 추구하는 국가¹⁷⁾가 있고, 행복을 기업의 사명으로 추구하는 행복한 기업가도 있기에 행복한 노동자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시각이다. 어쩌면 행복한 노동자가 있기에 행복 기업이 있는 것이고 행복 국가도 탄생할 수 있다. 행복한 노동자는 자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최고의 생산품을 만들며, 행복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행복한 기업의 핵심 인력인 동시에 나아가 가정에서는 행복한 자녀를 생산하는 행복한 부모의 산실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복한 노동자는 타고난 것인가? 혹은 훈련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행복한 노동자가 100% 타고난 것이라면 얘기할 필요가 없으리라. 행복한 노동자 역시 훌륭한 부모, 훌륭한 기업가, 훌륭한 정치가처럼 교육과 훈련에 의해 양성될 수 있기에 감히 우리 모두 노동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노동자가 되어 보자고 글을 쓰는 것이다. 행복한 노동자의 범위는 매우 폭이 넓어서 행복한 제조업자, 공무원, 사무직, 교사, 연구원, 교수 등을 포함하므로 거의 모든 직종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행복한 노동자가 될 수 있는 첫째 자질은 무엇보다 자신의 일에 대한 소명감이라 할 수 있다. 나의 일이 사회에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는 동시에 자기 일과 존재의 의미를 결부하여 나름대로 소명 의식을

17) 히말라야 산맥의 소국인 부탄은 국민 총 행복(Gross National Product)을 국가 정책의 목적으로 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선진국에서도 이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하고 있다: OECD Global Project, *Measuring the Progress of Societies*, 2008년 11월 제3호 참조.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일에 대한 태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일할 때의 자신감과 열정의 차이를 낳고, 그 차이는 다시 일에 대한 성취도의 차이를 가져 온다. 일하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소명 의식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이겨내고 자기 소명을 이루지만, 일에 대한 의미도 없고 소명감도 없는 사람은 자그마한 어려움이 생겨도 그만 멈추고 만다. “자신의 일을 찾은 이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 이상의 축복을 요구하지 말자.”라고 한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의 말을 기억하자.

두 번째 자질은 자신의 일에 대해 끊임없이 배우고 연습하는 태도이다. 매일 하는 일이지만 똑같이 여기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대체적으로 한 가지 일을 10년 정도 하면 전문가의 경지에 오른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일이라도 그 일이 갖고 있는 다양성과 깊이를 고려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일을 하는 것과, 새로운 시각에서 일을 돌이켜보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동시에 세밀한 조건들도 따져 가면서 일하는 것은 효율성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은 새로운 영역의 지식과 사람을 알아야 한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 책이 쏟아 나오는 오늘날 그 분야의 지식을 섭렵하려면 10여 종 이상의 좋은 책을 읽어야 이해할 수 있다. 기존의 책을 통해 획득한 지식과 더불어 그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암묵적인 지식을 함께 얻는다면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길을 아는 것과, 실제 그 길을 걷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만 번이나 실험했다고 한다. 수만 번이나 되는 길을 걸었을 때 마침내 전구에 불빛이 들어왔다고 하니, 우리 역시 나름대로의 길을 찾아서 성공하려면, 수많은 실험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행복한 노동자의 세 번째 자질은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삼는 것이다. 세계적인 기업인 GE의 최고경영자 제프리 이멜트(Jeffrey R. Immelt)는 “정직과 신뢰성에 대한 GE의 명성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복한 노동자의 경우에도 정직과 신뢰가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래전에 들은 얘기로 택시 기사가 외국에서 온 손님에게 관광 안내를 하였다고 한다. 며칠 동안 관광을 안내하고 난 후 그 택시 기사는 그동안 들인 택시 경비, 관광안내소 경비 등을 정산하면서 일 원, 일 전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여 받은 금액 중에서 거스름돈을 되돌려주었다. 그 후 외국의 손님이 한국에 다시 와서 그 택시 기사에게 한국의 사업을 맡겼다고 한다. 단 돈 일 원, 일 전까지 정직하게 계산하여 돌려주는 모습에 감동받아 사업의 파트너로 삼은 것이다. 정직은 그 사람을 신뢰하게 만들며 나아가 인생을 바꾸곤 한다. 그러기에 도산 안창호 선생, 김수환 추기경과 같은 분들이 끊임없이 정직과 신뢰의 중요성을 말하여 왔고,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넷째 행복한 노동자의 조건은 관계 형성에 탁월한 사람이다. 행복한 노동자는 자기 일이 다양하고 복잡다기한 조직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기에 그 일을 함께 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형성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고, 원만한 관계 형성을 통해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이다. 오늘날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关系’[guānxi](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중국이지만, 관계가 좋을 때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일이 진척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실 이는 세상 어디가도 어느 정도 통용되는 법칙이 아닐까?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하였는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긍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태도로 동료, 상사와 관계를 유지하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동료들이 도와주고 상사가 후원한다. 실제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도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혜택을 더 많이 본다. 직장에서

승진도 능력보다 인간관계를 더 중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의 성과 역시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행복한 노동자는 자기 노동이 몰입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자기 행복감 역시 증진된다는 것을 안다.

다섯째 행복한 노동자의 조건은 열의를 갖고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다. ‘플로’(flow)에 대한 연구로 저명한 미하이 칙센미하이는 일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 집중함으로써 플로를 얻는 사람은 전반적인 삶의 질이 매우 높다고 말한다.¹⁸⁾ 우리는 일할 때 그냥 시간을 한가롭게 보내는 여가 시간보다 플로를 경험하기 쉽다. 왜냐하면 일은 목표가 있고, 피드백, 규칙, 도전이 있어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자신마저 잊고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일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약속 시간마저 깜박하는 경우가 생긴다. 위대한 천재들은 집중의 귀재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 신경을 별로 안 써서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저녁식사 초대도 깜박하곤 하여 아내와 결별하기도 하며, 동료로부터 괴짜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여섯 번째 행복한 노동자의 조건은 자율적이면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하는 일의 범위와 방법, 시간 등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더 행복해할 수 있다. 예전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출퇴근하는 것이 대부분 직장들의 업무 지침이었지만, 최근 유연한 근무로 인해 아침 한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추기기도 한다. 더구나 재택근무 등이 도입되면서 더욱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 이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창의적인 발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자의 삶의 질은 더욱 높아졌다.

이탈리아 알프스 산맥의 76세 할머니에게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였더니 “소젓 짜는 일, 소땀을 목초지에 묻고 가는 일, 과수원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일, 양털을 빗질하는 일”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야말로 자신의 일이 가장 재미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언제나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다. “나는 자유스럽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만일 어떤 일을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죠.”¹⁹⁾ 이처럼 행복한

18) 미하이 칙센미하이, 몰입(Flow), 한울림, 2005 참조.

19) 같은 책 참조.

노동자는 자기가 일의 주인공이 되어 자율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일곱 번째 행복한 노동자의 자질은 일 자체의 성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IMF 이후 대부분의 직장은 성과제로 운영된다. 성과급의 이점은 과거에는 연공서열급으로 인해 직장에 그저 오래 근무하면 무조건 봉급도 올라가는 것이었으나, 최근 성과급이 도입되면서 나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성과가 있으면 승진되고 봉급도 더 받는 제도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열심히 일한 사람은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어영부영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 구조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 위주의 관행은 노동자의 의식을 돈 중심으로 바꾸어 놓아 돈이 되면 윤리나 도덕도 멀리하고, 동료 간의 돈독한 관계도 파괴되는 직장 문화를 만들었다.

그런데 행복한 노동자는 돈만 보고 일을 하는 기계가 아니라, 일 자체의 만족감과 기쁨을 보고 일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돈이란 외적인 보상으로 동기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인 동기로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 기쁨과 행복감을 만끽하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일의 윤리, 직업 윤리, 기업 윤리에 눈을 뜨고 그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여덟 번째, 행복한 노동자의 자질은 자기 일에 대한 윤리적인 의식과 사회적인 책임감에서 드러난다. 명품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를 구별하는 가장 큰 잣대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상품과 서비스이다. 10여 년 전 독일을 방문하였을 때 자그마한 호텔이라도 구석구석 너무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화장지도 깔끔하게 접혀 있는 모습을 보고 ‘역시 독일이구나!’라는 감탄사를 절로 내뱉은 경험이 있다. 하잘것없는 것 같지만 화장실 청소조차 고객의 눈으로 보고 고객의 입장에서 하는 것은 일에 대한 성실성과 준비가 없으면 될 수 없다. 독일의 호텔 룸서비스 노동자가 명품 노동자이니 독일에서 생산한 벤츠나 기계 등 이보다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도 세계 시장에서 각국의 소비

자들에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닌가?

최근 미국의 인명 구조대가 자기 구역을 벗어나 목숨을 잃을 지경인 사람을 구호했다고 해서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경우 나도 그럴 것이라고 동조한 동료 인명 구조대원들도 다 함께 해고되었다고 한다. 그 회사의 규정에 의하면, 인명 구조대원은 자기가 맡은 구역을 벗어나서 구조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맡은 구역 밖이라면 회사 규정대로 구조 활동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명 구조가 직업인 그 사람은 자기 본분인 인명 구조 활동이 회사 규정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회사 규정을 알고도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사람을 구조했던 것이다. 일에 대한 윤리와 사회적 책임감이 투철했기 때문에 감히 자기 밥줄을 걸고 사람을 구해 낸 것이다. 이 사건은 직장의 규정과 일의 윤리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나, 행복한 노동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잘 나타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홉 번째, 행복한 노동자는 부패에 물들지 않고 자기에게 떳떳한 사람이다. 부정부패의 고리에 빠진 사람들은 좀처럼 빠져 나오기 쉽지 않다. 인간의 탐욕은 끊임없이 돈과 권력, 명예의 유혹에 빠지고, 한 번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끊어버리기 쉽지 않다. 부정부패의 늪에 빠진 후 나중에 들통이 나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은커녕 죄의식과 수치심으로 생명을 잃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부패는 생명을 잃게 할 뿐 아니라, 가정을 파탄시키고 나아가 조직에도 큰 타격을 가한다. 엔론(Enron Creditors Recovery Corporation)의 최고 경영자가 분식 회계로 파산한 뒤에 자살하면서 아내에게 남긴 유서를 보면, 한 때 자부심이 있었으나 그 자부심마저 무너졌고, 이제는 죽음으로 갚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아내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있다. 부정부패는 이처럼 한 개인의 몰락 뿐 아니라, 그와 관계된 가정의 파탄, 조직의 멸망을 가져 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행복한 노동자는 자신에게 떳떳하고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부모,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탐욕에 기울어지는 자기 마음을 절제

하고 청렴 서약을 스스로 잘 지키는 사람이다.

열 번째, 행복한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에 대해서도 연대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오늘날 나만 살자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나만 살지만, 결국에는 나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죽이는 경우가 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나의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브라질의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 미국 켄터키 주에 토네이도를 일으킨다는 말처럼 아주 사소한 움직임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준다. 일본을 덮친 지진 해일(tsunami, 津波)와 방사능이 한국이나 중국 등의 주변 국가뿐 아니라, 멀리 미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본 동부의 접안 시설의 일부, 오토바이, 축구공 등 엄청난 쓰레기 더미가 1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서부 해안에 파도에 떠밀려 와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일본에 밀려온 경제적인 타격은 한국과 중국 등에 다각도로 영향을 주고 있다. 글로벌 세계에 살고 있는 행복한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자기 임금이나 근로 조건뿐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등 다른 이를 배려하며 중요한 의사를 결정한다.

열한 번째, 행복한 노동자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다. 오늘날 지구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후 변화도 심각하여 지진, 해일, 토네이도, 태풍 등이 예전과 달리 삶의 여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동안 지구에 대한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시작한 작은 행동, 별 볼일 없는 소비 행동이 지구에 서서히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조금 불편하지만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고 옷이나 전자 제품 등의 재활용(recycling)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현재 내가 누리는 다양한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 글로벌 지구에서 살아가는 명품 노동자의 자세이다. 나아가 생산 활동에도 녹색 성장에 집중하여 지구를 살리면서 인간의 편리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일을 구상하고 이를 실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행복한 노동자의 자질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사람이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자질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을 바탕으로 한다.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어떤 고귀한 일도 할 수 없다. 행복한 노동자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영적인 건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위해 매일 애쓰는 사람이다.

6. 행복한 노동자의 양성

행복한 노동자는 태어나는가? 혹은 훈련에 의해 양성되는가? 사실 행복한 노동자와 더불어 행복한 기업가, 행복한 지도자가 태어나면서 만들어진다면 위의 질문은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행복한 노동자를 만들기 위해 행복한 노동자의 정자와 난자를 수정하거나 유전자를 복제하여 만들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행복한 노동자는 인공적인 수정이나 유전자적 조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훈련, 사회적인 제도 등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최고의 행복한 노동자 학교는 가정이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아침에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 직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생각을 갖는다. 행복한 노동자는 일터가 아닌 가정에서도 비슷한 사고방식과 태도를 갖고 가사와 자녀를 돌보므로 행복한 노동자의 일 습관 등이 알게 모르게 자녀에게 학습될 수 있다. 책을 많이 읽는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책을 많이 접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운동을 많이 접하며, 문화 예술 활동을 많이 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문화 예술 활동을 많이 접하는 것이 당연하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자기가 오랜 세월 배워서 취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행복한 노동자의 기술과 노하우는 자녀에게 암묵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전수될 가능성이 크

다. 또한 직장의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암묵적으로 자기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배운다.

두 번째 행복한 노동자의 학교는 정규 학교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계발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집약하여 미래의 삶과 직업을 준비시키는 기관이다. 오늘날 교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사회는 이러한 과목들이 통합되어 살아있는 지식을 요구한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²⁰⁾. 오늘날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등 학생들도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일을 경험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 학교에서 지식뿐 아니라 일에 대한 의미, 가치, 태도 등을 가르친다면 10대부터 행복한 노동자의 자격을 갖추 수 있을 것이다.

사회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20대, 취업을 하면 행복한 노동자가 저절로 되는 것일까? 기업에서는 다양한 직무 교육, 교양 교육 등을 통해 행복한 노동자를 키우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행복한 기업으로 유명한 유한킴벌리는 3교대를 활용하여 직원들이 1년 100시간 이상 다양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자기 직무와 직접 관련된 교육뿐 아니라, 일과는 다소 동떨어져 보이는 인문 소양이나 교양 교육을 받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직원들의 생산성이 해가 갈수록 높아져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행복한 노동자를 만들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있는 것일까? 행복한 노동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점을 인식할 때 행복한 노동자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구비한다면,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더 많은 행복한 노동자를 양성할 수 있다.

20) 미국, 독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에서도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에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일과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무근, 직업능력인증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7 참조.

교회는 가톨릭노동청년회(Jeunesse Ouvrière Chrétienne)와 가톨릭노동장년회(Action Catholique Ouvrière)라는 사도직 단체를 통하여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존엄성을 일깨우고, 행복한 노동자를 양성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목 활동을 전개하였다. 벨기에 출신 조셉 카다인(Joseph Cardijn) 신부는 “노동자들은 기계도, 동물도 아니다. 이들도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귀한 인간이다.… 한 사람의 노동자는 이 세상의 모든 금(金)을 합친 것보다 더욱 귀하다.”²¹⁾라며 1925년에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설립하였다.

그는 이 단체를 통하여 청년 노동자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신들의 인격적 품위를 깨닫고 자기들만이 완수할 수 있는 사명을 짊어지고 있음도 도왔다. 또한 청년 노동자들이 자신을 갖도록, 단결하여 조직을 만들도록, 노동의 존엄성과 노동하는 사람들의 품위를 위하여 평화적이면서도 과감하게 투쟁하도록 도왔다.²²⁾ 즉,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을 통하여 젊은 노동자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며 복음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도록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하였다.²³⁾

카다인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자기 삶과 노동계, 나아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려는 운동에 투신하는 청년 노동자의 모임으로 신앙의 진리, 경험의 진리, 실천의 진리라는 세 가지 진리를 바탕으로 하여 ‘생활 반성’(Review Of Life)이라는 독창적인 교육 방법을 고안하였다.²⁴⁾ 따라서 청년 노동자들은 소소한 일상, 감정들을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스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찰·판단·실천이라는 생활 반성 과정을 통해 양성된다.²⁵⁾ 가톨릭노동청년회는 1958년에 우리나라에도 설립되

21) 황상근, 가톨릭노동청년회 벽돌 없는 학교, 성바오로출판사, 1989, 93쪽.

22) 로저 오베르, 마르케리뜨 페베즈, 자끄 메르트 지음, 성염 옮김, 노동 청년의 벗 조셉 까르덴, 가톨릭출판사, 1977, 7쪽.

23)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가톨릭대사전 2, 한국교회사연구소, 1995, 1367쪽.

24) 한국 가톨릭 노동청년회, 한국 가톨릭 노동청년회 25년사, 분도출판사, 1986, 43-44쪽.

25)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어 이 땅에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존엄성을 고취하여 책임감 있고 행복한 청년 노동자들을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어 1964년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노동자 가정과 자기 성화로 노동계에 정의와 사랑, 희망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가톨릭노동장년회가 우리나라에도 설립되었다. 가톨릭노동장년회는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영성을 바탕으로 장년 노동자들의 자율성과 특성을 존중하면서 상호 유대와 교류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장년 노동자를 양성하여 인간 존엄성과 사랑이 우선하는 사회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²⁶⁾

셋째, 행복한 노동자를 만들 수 있는 사회의 제도적인 장치의 예를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 1) 행복한 노동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모두를 포괄하면서 1:1의 멘터(mentor)와 멘티(mentee)를 연결하는 멘터링(mentoring)을 통해 멘터인 행복한 노동자를 통해 신입 사원을 미래의 행복한 노동자로 양성할 수 있다. 이는 직급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요소를 포함하며, 교육 내용으로는 행복한 노동의 의미, 가치, 윤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2) 대부분 한국 기업의 노동자는 주 5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노동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압축적으로 40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학습을 하거나 교육을 받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1년에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교육 시간을 배정하고, 추가로 학습하거나 교육할 때에는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며, 교육비는 고용보험환급을 통해 받으면 최소 경비로 교육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3) 행복한 기업의 경우 자발적 혹은 노동조합과 협력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이나 근무 조건, 복지 혜택 등을 잘 배려하는 경향이 있다. 노동조합

26)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가톨릭대사전 1,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113 쪽.

이 있는 행복한 기업은 노조와 협력적 노사 관계를 통해 행복한 노동자의 양성에 주력할 수 있다. 행복한 노동자는 노동의 질이 높기 때문에 성과가 높다. 그 결과 복지 혜택이 많고 또한 복지 혜택을 잘 활용하여 자기 노동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다.

7. 경제 공동체²⁷⁾와 행복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국민의 행복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 나아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무엇으로부터 이뤄지는가? 노동의 관점에서 볼 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임금과 근로 조건이 수반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자리가 없으면 인간의 존엄성도 없어진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²⁸⁾과 궤를 같이 한다.

노동조합이 없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이러한 기회는 선의의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제공할 때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용주는 가능한 적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을 내세워 이윤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 따라서 노동자의 행복은 고용주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근로자의 저임금 구조와 열악한 근로 조건을 이윤의 극대화란 목표가 아닌 노동자의 행복이란 관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조합원들만의 임금이나 고용 조

27) 아래에서는 경제 공동체를 노동조합, 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정한다.

28) 2013년 9월 22일자 연합뉴스 참조.

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비조합원들, 특히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고용 문제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대기업 노조들의 평균 임금이 비정규직의 3-4배나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결과이다. 동일 노동을 하더라도 대기업의 노조에 속하는가? 혹은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에 속하는가? 이에 따라 임금과 근로 조건이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정책이 조금씩 씨앗을 뿌리고 있어서 변화할 조짐이 미미하게 보이고 있지만, 대기업의 거센 저항 때문에 그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인지 당분간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노동조합, 특히 대기업의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복리뿐 아니라 비조합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기 것을 조금씩 공유하려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자기중심의 사고, 나만의 편익에 익숙하여 공유하는 삶이 실현되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여겨진다. 대기업의 노동조합은 나만의 것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때 노동조합이 지향하는 가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명 현상을 일으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확장되고, 연대와 협동이라는 노동조합 본래의 가치가 실현될 것으로 여겨진다.

고용 인구의 80퍼센트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주체적으로 노동자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화두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의 특성을 볼 때 자본과 시설 등이 충분치 않아서 노동자의 임금이나 근로 조건 등이 대기업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다. 더구나 대기업의 하청 기업으로 존재하는 경우 자체 기술 개발이 힘들고 특허 기술 등을 보유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을”로서 “갑”인 대기업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납품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최소의 수익으로 최소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중소기업이 육성한 고급 인력은 대기업에 빼앗기고, 신규 인력 역시 채용하기 힘든 악순환의 구조에 고착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라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중소기업 기업가와 노동자를 위한 행복의 첫째 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 민주화²⁹⁾의 문제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지만, 대통령 선거 이후 다시

29) 경제 민주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종일과 손석춘, 경제민주화가 희망이다, 알

묻혀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노동자는 중소기업 창업자 혹은 기업주의 선의에 그저 따르면 될까? 중소기업 기업주 역시 자기 이익이 우선 앞서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자기의 임금이나 고용 조건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노동자가 함께 출자하여 공동 경영하는 협동조합 혹은 노동자 운영 기업 등의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고용에 관한 한 중소기업이 전체 노동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서 협동조합 모델³⁰⁾을 설명하고자 한다. 주식회사가 아닌 협동조합으로서 중소기업 모델은 대다수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기업가가 아닌 노동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된다. 2012년 12월에 통과된 협동조합 기본법은 5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들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면,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이러한 협동조합 구조는 조합원 모두의 권리, 임금과 고용 조건을 최대한 보장하는 구조이므로 노동자의 행복권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³¹⁾ 이러한 공동 출자와 공동 의사 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생태계가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의해서 형성되고 뒷받침된다면, 2013년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와 돈 중심의 사고, 소통의 부재로 인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지수 100여 위 권 등의 반생명, 반행복의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 2012 참조.

30) 협동조합에 대한 참고 문헌은 김성오, 몬드라곤의 기적, 역사비평사, 2012; 데이비드 본스타인, 달라지는 세계, 지식공작소, 2008; 고마자키 히로키, 젊은 사회적 기업가의 꿈, 에이지21, 2007 등 다양하다.

31) 협동조합의 기본 원리는 자본보다 사람 중심이다. 이는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를 강조한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인 노동하는 인간 제15항과 일맥상통한다.

8. 맺는 말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에 의하면, 발전이란 개인이나 인류 공동체가 인간답지 못한 생활 조건에서 더욱 인간다운 조건으로 나아가는 변화이다. 인간답지 못한 생활 조건은 물질적 결핍, 윤리적 빈곤, 사유권과 권력 남용, 착취, 불의한 사회 구조 등이며 인간다운 조건은 빈곤의 해방, 생활에 필요한 재화 획득, 사회악 제거, 공동 복지를 위한 협력 등이다. 이 ‘발전’에서 건설적인 요소는 인간 노동의 지속적인 재평가이다. 또한 ‘발전을 실현시킬’ 가장 적절한 ‘방법’은 모든 노동의 객관적인 목적에서 그리고 모든 노동의 주체, 즉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노동에 대한 지속적인 재평가’라고 말할 수 있다(민족들의 발전, 20-21항 참조).

인간 노동의 재평가라는 측면에서 이 글은 노동과 행복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접목하여 노동자의 행복을 살펴보고 노력했다. 행복에 대한 교회의 전통과 교회학자의 견해는 하느님과 만남에서 찾는 것이지만, 점차로 세속에서 행복을 강조하는 신학도 행복학 연구와 더불어 싹트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인간의 일상을 차지하는 노동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노동 속의 행복을 일과 직업의 소명 확인, 몰입과 열정 그리고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게 하는 적정 임금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노동자의 자질과 열정도 환경의 영향에서 일정 부분 놓여 있기 때문에 노동의 성격을 더욱 행복 지향적으로 만들게 하는 행복한 직장, 행복한 일터의 성격과 속성의 변화도 중요하다. 상사와 관계, 아름다운 환경, 몰입을 유도하는 환경 등 이 글에서 제안하거나 논의한 사항들 중 일부는 혁신적인 기업이나 개인들에서 어느 정도 도입하고 있고, 또 일부는 조만간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들이나 생각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보급되었는지는 미지수이고,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아직 5%도 보급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행복한 노동자는 관계 형성, 몰입, 공부하는 자세, 소명 의식 등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개별 노동자의 각성과 노

력뿐 아니라 기업, 지자체 그리고 국가의 관심과 지원은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의 행복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행복 경영과 국가의 행복정치 만들기는 각기 주체적인 노력 여부에 따라 조만간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³²⁾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실업의 위기가 피부에 와 닿는 시기에 “일자리가 없으면 인간의 존엄성도 없어진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처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각도의 창의적인 노력을 통하여 제공하는 일자리야말로 행복한 노동의 필요 요건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제대로 된 일자리 제공은 어떻게 가능할까? 모두가 마음을 비우고 고민할 때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32) 필자가 곧 출판할 예정인 저서, 행복상상력-수신제가 편에 노동자의 행복을 비롯한 개인 차원, 기업 차원의 행복 경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사회 교리와 나 자신을 연결해 보기

1. 나에게 행복한 노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행복한 노동자인가? 행복한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가?
2. 내가 일하는 곳은 행복한 일터인가? 행복한 일터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하는 곳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3. 행복한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해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좋은가?
4. 내가 하는 일은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가? 혹은 나는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가?
5. 내 일터에서 하는 일을 사례로 제시하여 발표하여 보자. 일터의 역사, 일하기 좋은 점,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 등을 A4용지 반쪽 내지 한쪽 정도로 정리하여 보자.

※ 행복한 노동자의 자질 체크리스트

	1	2	3	4	5
	매우 낮다			매우 높다	
1. 자신의 일에 대한 소명감	1	2	3	4	5
2. 항상 배우고자 하는 태도	1	2	3	4	5
3. 정직과 신뢰	1	2	3	4	5
4. 관계 형성 능력	1	2	3	4	5
5. 열의 및 집중	1	2	3	4	5
6. 자율성과 창의성	1	2	3	4	5
7. 일 자체의 성과에서 기쁨	1	2	3	4	5
8. 윤리적 의식과 사회적 책임	1	2	3	4	5

9. 부패로부터의 자유	1	2	3	4	5
10. 다른 노동자에 대한 연대의식	1	2	3	4	5
11. 생태적이고 지구적인 의식	1	2	3	4	5
12.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	1	2	3	4	5

- 참고 문헌 -

- 김명소·한영석,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 개발, 한국조사연구학회, 2006.
- 김성오, 몬드라곤의 기적, 행복한 고용을 위한 성장, 역사비평사, 2012.
- 김승권,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이무근, 직업능력인증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7.
- 장영식,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2007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조은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의 사례, working paper 2009-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 조은상, 행복지수와 인재개발, working paper 201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 주재선, 국제리뷰 「OECD 포럼과 행복지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가톨릭대사전 1,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가톨릭대사전 2, 한국교회사연구소, 1995.
- 한국 가톨릭 노동청년회, 한국 가톨릭 노동청년회 25년사, 분도출판사, 1986.
- 황상근, 가톨릭노동청년회 벽돌 없는 학교, 성바오로출판사, 1989.
- 로저 오베르, 마르케리뜨 페베즈, 자끄 메르트 지음, 성염 옮김, 노동 청년의 벗 조셉 까르덴, 가톨릭출판사, 1977.
-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 사회교리 문헌편, 2011.

-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 사회교리 주제편, 2011.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노동하는 인간, 1988.
- OECD준비기획단, 성장 중심에서 행복한 미래로, 한눈에 보는 제3차 OECD 세계포럼, 통계청, 2009.
- OECD Global Project, *Measuring the Progress of Societies*, 11월 제3호, 2008.
- 고마자키 히로키, 젊은 사회적 기업가의 꿈, 에이지21, 2007.
- 데이비드 본스타인, 달라지는 세계, 지식공작소, 2008.
- 레오 보만스 위음, 노지양 옮김, 서은국 감수, 세상 모든 행복, 세계 100명의 학자들이 1000개의 단어로 행복을 말하다, 흐름출판, 2012.
- 마틴 셀리그만 지음, 김인자 옮김, 긍정심리학, 서울물푸레, 2006.
- 미하이 칙센미하이, 몰입(Flow), 한울림, 2005.
- 빅터 프랭클 지음, 이시형 옮김, 죽음의 수용소에서, 청아출판사.
- 시셀라 북 지음, 노상미 옮김, 행복학 개론, 이매진, 2010.
- 아나톨 칼레츠키 저, 위선주 옮김, 자본주의 4.0, 컬처앤스토리, 2011.
- 아리스토텔레스 지음, 이창우 · 김재홍 · 강상진 옮김,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제 이북스, 2006.
- 칼로 보르자가 외, 사회적 기업, 2009.
- 툼 모리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너럴 모터스를 경영한다면, 예문, 2001.
- W. F. 화이트, K. K. 화이트 지음, 김성오 옮김, 이효재 감수, 나라사랑, 1993; 드라곤을 배우자, 자본주의의 부정의와 사회주의의 비효율을 넘어선 정의와 효율의 통일, 역사비평사.

Myers, David G., Diener, *Ed*,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1995.

Lambert, Jill, *The Economics of happiness*, Canadian Business, 2005.

Veenhoven, Ruut, *MEASURES OF GROSS NATIONAL HAPPINESS*, 2007.

한국 가톨릭 영성의 스승 · 노동사목의 개척자: 고 도요안 신부

1. 들어가는 말
 2. 그리스도인의 영성
 - 1) 영성의 정의와 모델
 - 2) 영성의 육화
 - (1) 하느님 체험의 표현인 영성
 - (2) 세상을 향한 투신인 영성
 - (3) 억압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향한 회개
 3.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과 가난
 - 1) 참 행복의 정의
 - 2) 가난한 사람과 참 행복
 4. 나가는 말
- 도요안 신부의 번역 및 발간 문건 목록

정영화(전문위원)

1. 들어가는 말

도요안 신부는 외국인 노동 사제로서 한국의 가난한 노동자와 봉헌된 평신도들을 위하여 50여 년 동안 동고동락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노동 사목을 지향하는 노동자와 평신도들을 신앙과 영적으로 양성하였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 영성을 체험하고, 봉헌된 평신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아마도 도 신부가 아직 생존해 있다면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설교하기 위한 강론과 집필을 계속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도 신부의 삶은 초지일관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노동사목을 노동자와 봉헌된 평신도들의 삶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는 선종하기 직전까지 집필한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사회 교리 등 다수의 저서들을 통하여 그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였다. 나아가 그는 노동 사제로서 ‘관찰-판단-실천’이라는 사목 방법에 기초하여 노동자와 평신도의 신앙과 영적인 양성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그가 생전에 집필하여 출간한 몇 권의 영성 서적들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도 신부는 생전에 『생명의 샘 정녕 당신께 있고』(*The Source of Life is really with You*),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The Father's Will-as it is in Heaven*),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God who is always with us*),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The poor you will always have with you*) 등 영성서적 4권을 발간하였으며, 선종 직후인 2010년 12월 1일에 발간됨으로써 유고작이 된 『교회의 전례로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자』와 함께 총 다섯 권의 영성서적을 마무리하였다. 물론 영성서적을 발간하기 전에 이건(마르코)과 함께 저술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낱알을 먹으리라』(*By the sweat of your labor shall you get bread to eat*) 그리고 『교회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노동』(*The Church, Ideology and labor*) 등도 발간하였다.³³⁾

도요안 신부는 스스로 사제로서 사교의 틀을 규정하였던 성경 구절 “어서 빨리 오시어 저를 도와주소서.”(시편 40,13)만큼 더 적절한 말씀이 없었다고 고백하였다.³⁴⁾ 그는 1993년에 신장에 암이 생겨 두 번이나 신장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기도와 영성에 관하여 집필하였다.³⁵⁾ 그 이전에 가톨릭교리신학원에서 수년간 영성신학 강의를 맡은 적이 있었다. 그때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영적 삶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소박한 소망이 있었다. 그는 이 과정을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병상에서 기도와 묵상 그리고 영성 체험을 통하여 해결하였다. 하느님께서도 신부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깊은 사랑을 베풀어주신 것이다. 이 글의 중점은 도요안 신부가 사제로 살면서 하느님께 대한 소명과 신학적 원칙을 고수하였던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다. 도 신부는 대학 졸업 당시에 들었던 ‘참 행복’의 말씀이 선교사로서 자기 소명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평생 가난한 노동자와 평신도를 양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던 도요안 신부의 삶을 살펴보면 청빈과 순명의 정신이 잘 드러나리라고 믿는다.

33)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엮음,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도요안 신부의 전기-, 가톨릭출판사, 2013.

34) 도요안, 사제·수도자·봉헌된 평신도들을 위한 영성 생활 지침서-주님 빨리 오시어 저를 도와주소서, 가톨릭출판사, 2000, 서문.

35) 제거 수술을 받은 뒤에 몸과 마음을 회복되는 동안 살레시오회 아일랜드 관구 잭 피니건(Jack Finnegan) 신부의 피정 녹음 『사제들을 위한 간구』(*Intercession For Priests*)에 영성 관련 자료를 덧붙여 영성 서적을 출간하였다: 필자 주.

2. 그리스도인의 영성

1) 영성의 정의와 모델

영성이란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애쓰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더욱 진실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³⁶⁾ 이는 내 안의 선과 악 그리고 무관심을 깨닫는 체험인 것이다. 나에게 씌워진 가면을 벗어 던지고 가식 없는 삶을 영위함으로써 위선이 아닌 진실로 사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구체적인 삶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키워 가는 길이라고 정의한다.³⁷⁾

영성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 동시에 “성숙한 인간으로서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이끌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체면이나 자존감 때문에 다른 이의 눈에 보이는 자기의 진정한 자아—선, 악, 무관심, 미움, 냉담 등—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도요안 신부는 교회 안에서 세 가지 영성의 모델, 즉 내적 영성과 창조적 영성 그리고 사회적 영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내적 영성은 은둔 생활, 개인기도, 신앙생활 계발 등과 같은 내밀한 영성으로서 신앙의 신학적 가치에 무게를 둔다. 피정할 때 주로 바치는 묵상기도나 침묵의 기도가 이 모델의 주된 특징이다. 예를 들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마태 6,6)와 같은 것이다.

36) 도요안, 같은 책(주 1.) 3쪽.

37) 같은 책, 3쪽 참조.

둘째, 창조적 영성은 “뜰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마태 6,28)의 경우와 같이 사람들을 목상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충만한 기쁨으로 영성에 접근하여 개개의 몸짓과 행동 하나에도 사랑과 경이를 드러낸다.

셋째, 정의와 평화의 사회적 영성은 정의라는 신학적 가치에 무게를 두고 노동자나 빈민들의 삶에 연대성을 가진다.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카 17-19)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영성을 따라서 각자 영성을 수행하는 이들은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삶을 이해한다. 부연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공간에 차단되어 내적으로 현실 문제를 이해하고, 어떤 이들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과격한 행동을 하다가 교도소에 갇히거나 살해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현실을 이해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자연에 매료되어 인생을 이해하는 이들도 있기 마련이다. 여하튼 성경은 이러한 영성의 세 가지 접근 방법이나 모델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³⁸⁾

그러나 도 신부는 이러한 세 가지 영성의 모델을 통합하는 ‘영육 통합’ 영성을 제시하였다. 그는 통합적인 영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전체도 그보다 더 큰 것의 부분에 불과하다. 예컨대 인간의 장기는 신체의 일부이고, 지구 역시 태양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인식론적 개념으로부터 이끌어 낸 것이다. 즉, ‘나’라는 존재는 전체 인류의 한 부분인 그리스도인이다. 따라서 ‘나’는 인류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³⁹⁾ 사실 상기한 각각의 영성 모델에는 나름대로 강점과 약점이 있다. 자기 삶에서 내적 영성 모델만 고집하는 사람은 현실과 유리된 공허한 주장이나 상념에 사로잡힌다. 이와 달리

38) 같은 책, 7-8쪽 참조.

39) 같은 책, 9쪽 참조.

자기 삶에서 창조적인 영성 모델만 고집하는 사람은 기적이거나 신비주의에 빠져 무속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특히, 정의와 평화의 사회적 영성 모델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원리적인 해방신학의 전략이나 전술에 사로잡혀 교회와 사회 안에서 편 가르기와 대립,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모든 영성 모델을 엄밀하게 관찰, 분석하여 각 장점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영성의 육화

사제와 수도자 또는 봉헌된 평신도인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모든 영성 모델들을 당신 안에서 구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앙과 법적 책임을 용인하여야 한다. 바로 이 점이 도 신부가 가난한 노동자와 봉헌된 평신도들에게 강조하였던 영성의 본질이라고 생각된다.⁴⁰⁾ 이와 같이 다양한 영성 모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을 영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 수 있겠는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공동체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도 신부는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한다.”⁴¹⁾라고 강조하였다. “시대의

40) 도 신부가 강조한 영성의 모델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된다. 즉, “만약 우리가 규칙적으로 묵상을 하고 있다면, 묵상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에 이웃을 위한 우리의 자발적인 행동이 우리 자신을 지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반성이 없는 사람은 권태를 느끼게 마련이다”(내적 영성 모델). 또 우리는 정력적인 운동가들이 자신들의 격분을 덜어내기 위하여 반성이나 묵상은 접어둔 채 그저 수많은 농성장과 모임들 사이로 정신없이 바쁘게 오가는 것을 자주 본다. 우리는 이러한 운동가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해방신학의 사회적 영성 모델).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살만 피둥피둥 찌고 게을러질 것이다!(같은 책, 9쪽)

41) 성경에서 “너희는 저녁때가 되면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꺾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

징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도 신부는 부단히 반성하고 회개함으로써 자기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 모두 하느님 말씀으로 회개하여야 한다. 하느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고서 어떻게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반성할 수 있을까? 오늘날 하느님 백성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인가? “주님, 여기서 지금 이 일을 하려는 당신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하느님의 말씀으로 회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우신다.

둘째, 우리 모두는 관상과 흠숭으로 회개하여야 한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기를 바란다면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포용력은 성령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생기며, 오직 하느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 풀턴 쉰(Fulton Sheen) 대주교는,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단 하나 “그것은 당신과 함께 기도하지는 것이다.”(마태 26,40 참조)라고 한다.

셋째, 우리 모두는 성사로 회개하여야 한다. 가톨릭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은 성사 안에서 성사를 통해서이다. 따라서 사제들은 성사를 통하여 신자들이 주님의 자애로운 현존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사를 집행하여야 한다. 물론 사제 자신도 아픈 이들을 찾아가 경건하고 열정적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고해 성사를 베풀어야 한다. 만일 사제들이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치유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이들을 치유할 수 있겠는가?

넷째, 우리 모두는 봉사(diakonia)로 회개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봉사는 한계가 없다. 유일한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의 능력일 뿐이다. 회개와 변화는 어느 것이든 쉽지 않고, 성숙의 과정에는 항상 고통이 따른다. 우리는 변화와 회개 그리고 성숙을 선택하여야 한다. 하느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분은 변화와 성숙에 충실한 사람을 원하신다. 우리는 항상 두

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징은 분별하지 못한다.”(마태 16,2-3)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 신부는 노동자나 다른 평신도들을 교육할 때 항상 시대의 징표를 읽을 줄 아는 의식 있고 지각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필자 주.

려워하며 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을 통하여 “무서워 말라!” 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주 이르셨다. 사랑 안에는 극도의 두려움을 다스릴 줄 아는 힘이 들어 있다. 문제는 사랑이 없으면 더 이상 영성을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과 이웃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이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두려움의 부재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옳게 알지 못한 데서 오는 결과이다.

(1) 하느님 체험의 표현인 영성⁴²⁾

그것은 간단히 얻은 직접적 체험이 아니라, 긴 반성과 숙고를 통하여 쌓여진 체험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더없이 나약하고 연약할 때 하느님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신부는 우리가 주님께 “주여! 보십시오! 저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루카 18,9-14 참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하느님 체험은 3단계로 구별할 수 있다.⁴³⁾ 첫째, 우리는 개인적 실존과 내적 차원에서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이다. 우리 각자는 하느님을 만나고 있으며, 이 단계는 “하느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성경 말씀과 부합하는 단계이다. 즉,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내적 영성 모델의 가르침이다.

둘째, 우리는 하느님을 우주 삼라만상 안에서 모든 창조물인 자연을 통해서 그 분을 만난다.⁴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당신을

42) 도요안, 같은 책, 18쪽 참조.

43) 같은 책, 19쪽 참조.

44) 복음을 보면,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마태 6,26,28)라고 한다. 혹시라도 심오한 영혼을 통해서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느님과 만남은 크게 제한을 받을 것이다: 같은 책, 19쪽.

발견하기를 바라고 계시는지도 모른다.

셋째,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형제자매의 불행과 고난(예를 들어 나치의 핍박으로 죽어간 유대인 등)을 통해서도 하느님을 만나야 한다. 인간 모든 실존의 다양한 형태 안에 하느님은 실존하신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려면,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우리 삶의 일부로 만들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내적 생활로써 하느님의 피조물을 생생히 지각함은 물론, 개인적이고 구조적인 악을 이겨내기 위하여 투쟁하는 신앙이어야 한다. 그것은 육화된 신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신앙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피조물과 우리 형제자매들을 책임지도록 이끈다. 영성의 체험은 육화된 신앙 체험인 동시에 우리 안에 살아 계신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체험이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과 이웃(사회)과 역사의 관계에 대한 체험은, 하느님과 친교이자 자연과 친교이고, 역사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친교이며, 회피하여서는 결코 안 되는, 반드시 직접 부딪혀야 하는 현실이다.

(2) 세상을 향한 투신인 영성

영성 자체는 사람, 장소, 시간이라는 구체적인 현실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의 영성이 실제로 유용한 것이 되려면 새로운 안목을 지녀야 한다. 우리는 더욱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편에 서야 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현상 유지’(status quo)를 비판하고 우리를 질책하시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셨다. 따라서 우리의 영성은 다소간 사회적 차원을 견지하여야 하며, 그 사회적 측면을 무시하는 영성은 복음과 어떠한 관련도 없어진다. 그것은 교회가 지난 100여 년 동안 신중하게 가톨릭 사회 교리를 펴 온 이유이다. 이를 통하여 가톨릭 사회 교리의 영성이 공동선, 공정한 재분배,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배려)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톨릭교회의 사회 교리는 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의 오랜 경험과 긴 반성의 산물이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사회 문제에 투신하려고 할 때 보편 교

회는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우리 각자가 개별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사회 문제에 관하여 반성하고, 이 반성을 모임 안에서 사람들과 계속 나눌 때 비로소 가톨릭 사회 교리에 따라 산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제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는 공동선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 지상 재화의 사회적 측면과 그 보편적 목적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보조성의 원리에 대한 공동체적 측면을 파악하고, 우리 환경에 대한 연대성을 개발하는 데 모든 노력과 열정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배려)을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전제에서 미셸 콰스트(Michel Quoist) 신부가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사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였다. 경건주의를 고집하는 제의실 별레들, 해방신학의 원리주의에 빠진 극렬한 운동가 그리고 평신도의 교육자로서 목자들이다. 경건주의자인 제의실 별레들은 늘 교회 행사들로 바쁘고, 그들은 정확한 전례 집행과 신자들을 잘 돌보는 것에만 만족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극렬한 운동가들은 항상 시위 행렬에 앞장서며, 모든 종류의 사회악과 부정을 개탄한다. 끝으로 목자로서 교육자들은 신자들의 의식(영성)을 고양시키고 평신도들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맡은 바 소명을 다하도록 그들을 계발하고 훈련시킨다.⁴⁵⁾ 미셸 신부는 오늘날 가톨릭이 원하는 사제와 봉헌자의 표상은 평신도들과 함께 평신도들이 사회 변화에 올바르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모습이라고 역설하였다. 세 번째 사제의 표상이었던 도요안 신부는 항상 평신도들의 영성 훈련과 교육을 강화하였던 이유를 무엇보다도 잘 보여 주었다. 도요안 신부는 한국의 가난한 노동자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였기 때문에 교황 비오 11세의 “교회는 노동자를 필요로 하고, 노동자는 교회를 필요로 한다.”는 말처럼 그들의 구원에 성직자와 가톨릭노동 청년회원들이 협력해야 함을 역설하고 실천하였다.

45) 같은 책, 21쪽 참조.

(3) 억압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향한 회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영성은 해방이다. 해방이란 말은 ‘회개’ 내지는 ‘회심’이란 의미로 정의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사회에서 더욱 완벽한 인간으로 거듭 성장한다. 인생이 회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동행하는 여정임을 알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여정의 본질과 의미를 찾아 나서게 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여정에 있지 않다면, 사회 바깥으로 내몰리거나 소외된 사람들 편에 설 수 있을까?

도요안 신부는 1959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미국인 청년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었던 한국으로 들어와 약 3년간 실습하고, 유학을 떠나 프랑스에서 사제 수품을 하고 나서 1967년에 다시 입국하였다.⁴⁶⁾ 당시 도 신부가 도림동본당으로 부임할 때도 역시 가난한 청소년과 노동자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심으로 많은 갈등을 경험하였다. 이 때문에 도 신부는 한국의 노동자들의 가난에 대한 신학적 저술과 강론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던 것이다. 새로운 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기술의 발전, 변화된 노사 관계, 극소수의 엄청난 풍요와 대다수의 빈곤, 노동자들의 자기 신뢰 증대와 상호 결속의 필요성, 그 밖의 윤리적인 타락이 투쟁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가 1970년대 한국의 노동 현실에도 드러났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1960년대 초부터 대다수 노동자들이 부당하고 비참한 처지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더구나 제도와 법률이 그리스도 정신을 전적으로 망각하였고, 노동자들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져 사익 추구에 매몰된 고용주들의 무절제한 탐욕에 희생되어 왔다. 가장 먼저 확립되어야 할 근본 원칙은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 존엄성에 비추어볼 때에 세상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 땅에서 고통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가

46) 1959년에 한국의 1인당 GNP는 59달러에 불과하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었다: 필자 주.

련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범죄와 형벌 그리고 고통이 없는 삶과 완전한 평화와 기쁨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기만이며, 현재 상태보다 더 심한 고통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에 대한 가장 적절한 태도는 인간의 모든 형편을 ‘있는 그대로’(de facto) 직시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말한 대로 악에 대한 해결책을 다른 곳에서 찾아내는 것이다.⁴⁷⁾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사태」의 원리는 도 신부가 노동자들의 고통과 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사목의 방향이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도 신부가 가장 고민하였던 가난의 신학적 의미와 해석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3.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과 가난

1) 참 행복의 정의

도 신부는 예수님의 하느님에 대한 영성과 설교, 노동자와 청소년을 비롯한 평신도 교리 교육의 증거 자료로 신약 성경 내용 중에서 특별히 공관 복음서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중요하게 다루었다. 더구나 또 다른 증거들은 그가 집필한 저서 내용 중에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마태오 복음과 루카 복음의 구절들에서 볼 수 있다.

우선 도 신부는 ‘참 행복’의 두 가지 양식을 마태오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가 제공하였다고 밝혔다.⁴⁸⁾ 마태오 복음서는 유대인 공동체, 특히 랍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루카 복음서는 유대교의 전통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루카는 예수님께서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까

4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회 교리에 관한 교회 문헌 교회와 사회, 1994, 18-9쪽.

48) 도요안,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가톨릭출판사, 2009, 72쪽 참조.

지 포함하는 더욱 광범위한 청중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며, 그들을 모두 동일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였기 때문이다.⁴⁹⁾ 참 행복은 예수님 프로그램의 요약이자 가르침의 핵심이다. 참 행복은 가난하게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가 베푸는 행복과 기쁨을 선포한다. 마태오 복음사가와 루카 복음사가가 참 행복을 제시하는 방식의 차이는, 우리가 이 가르침을 우리 각자의 고유한 견지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문화와 생활환경의 특수성에 맞추어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참 행복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행복해지고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애쓰는 삶에 실질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

도 신부가 처음으로 깊은 인상을 받은 참 행복에 대하여 진지하게 경청하였던 기회는 고향 뉴저지 주에 있는 몽클레어 주립 사범대학에서 수강할 때라고 기억하였다.⁵⁰⁾ 그는 참 행복 선언과 교사로서 의미 있는 삶을 선도하여야 할 중요성을 강조하였을 뿐, 다른 내용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회고한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 사제로서 선교사 생활에 대한 소명에 응답하여 몽클레어를 떠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 신부가 저드 의원의 졸업식 연설에서 들었던 참 행복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서 중심이란 인상을 깊이 새겨졌다고 회고하였다. 다시 말하면, 참 행복은 도 신부로 하여금 겸손하게 살고, 선교 의식을 갖추고, 참 행복 선언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 정신에 감동됨으로써 선교사로서 충실하게 살아야 할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기술한다.⁵¹⁾ 또한 도 신부가 참 행복의 말씀이 재차 마음을 울린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첫 회기가 개최되었던 1963년 늦은 봄 로마에서 신학생으로 공부할 때이었다. 이때 참 행복의 말씀을 전달해 준 이가 복자 요한 23세 교황이었다

49) 같은 책(주13), 73쪽.

50) 1956년 몽클레어 주립 사범대학 졸업식을 맞아 학장은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저드(Judd)라고 하는 미국 하원의원을 초청하여 연설하게 하였다. 저드 의원은 이제 막 교사로 출발하려는 학생들에게 참 행복을 인용하면서 아주 가까운 장래에 그들이 떠날을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직무를 시작할 때는 전적으로 헌신하고 관대하게 인성을 심어 주는 교사가 되라고 촉구하였다: 같은 책(주 13), 75쪽.

51) 같은 책(주13), 76쪽 참조.

고 기술하고 있다.⁵²⁾

그러면 우리는 참 행복을 어떻게 읽고 묵상할 수 있으며, 그 정신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조셉 카다인(Joseph Cardijn) 추기경은 젊은이들이 단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개인적인 생활에 적용하도록 돕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념을 가진 젊은이라면 단순한 개인적 회심과 활동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 젊은이들은 점진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생활에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사회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기를 희망하는 가운데 자기 주변의 젊은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카다인 추기경은 ‘관찰-판단-실천’ 하는 자기 방식을 발전시켜 가는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각기 체험한 것들과 심지어는 실패한 것들뿐 아니라, 부족한 점들까지도 반성하고 서로 나눌 때에 그들의 삶에서 가난의 정신을 키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풀어 말하면, 각 개인이나 각각의 가정 혹은 개별적인 신앙 단체가 세속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로서 복음 정신에 따라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복음 정신은 개인과 가정 그리고 단체를 넘어 그들이 생활하는 환경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즉, 복음 정신을 모든 사람의 생활환경과 사회 전체까지 확산시키고 적용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깊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참 행복의 정신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생생하게 살아 있다. 우리는 복음을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자 애쓰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선(good)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빈번히 우리는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성찰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 성령께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삶을 성찰하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이들과 함께 반성함으로써, 우리 가

52) 요한 23세 교황은 인류애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발잔(Balzan) 상을 수상했을 때, 참 행복의 말씀을 심오한 어조로 읽으면서 매우 적절한 방식으로 풀어서(해설) 말했다고 기억하였다: 같은 책(주13), 76쪽 참조.

운데서 이루어지는 선과 은총을 어떻게 거둬들여야 할지 배워야 한다.⁵³⁾ 참 행복은 역설적이다. 그것은 세상에 알려진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여기는 것과는 반대되는 가치를 선언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라는 선언은 다시금 참 행복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가 된다. 도 신부는 현실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참 행복을 가난한 노동자들과 평신도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영성을 통하여 보여 주었다.

2) 가난한 사람과 참 행복

부(rich)와 가난(poor) 사이의 관계는 성경 면면에 줄곧 등장하는 주제이었다.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이들은 누구인가? 구약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궁핍한 사람’(ras), ‘비천하고 마음이 허기진 사람’(anawim), ‘굶주린 사람’이나 ‘보잘것없고 나약한 사람’(dal), ‘구걸하는 사람’(ebyon) 등으로 표현한다. 그 외에 병자, 장애인, 노인과 같이 생계를 주로 자선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더 이상 자기 생존을 위하여 몸을 움직여 일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자선에 의존해서 살아간다.⁵⁴⁾ 또한 유대교에는 생활 여건 때문에 공적으로 거부당하는 이들이나 가난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이들이 있었다.⁵⁵⁾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가난의 짐을 덜어 주기 위하여 취하는 구체적인 조처들은 점차 성경에 바탕을 두는 신앙심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되었다. 많은 조언 중에서도 토빗기 4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53) 1990년 2-3월에 테제 공동체의 로제 솔츠(Roger Schultz) 형제로부터 온 편지는 폴란드 실레시아 지방의 피에카리를 순례하는 광부들에게 행한 연설이 참 행복을 실천하는 노력의 성찰로 지적하였다: 같은 책(주13), 80-81쪽 참조.

54) 같은 책(주13), 83쪽.

55) 목동, 의사, 세탁업자, 정육점종사자, 전염병 환자(피부질환, 나병 등), 매춘부, 세리, 이방인 등이다: 필자 주.

네가 가진 것에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자선을 베풀 때에는 아까워하지 마라.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그래야 하느님께서도 너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네가 가진 만큼, 많으면 많은 대로 자선을 베풀어라.

네가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자선을 베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곤궁에 빠지게 되는 날을 위하여 좋은 보물을 쌓아 두는 것이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 주고 암흑에 빠져 들지 않게 해 준다.

사실 자선을 베푸는 모든 이에게는 그 자선이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바치는 훌륭한 예물이 된다(토빗 4,7-11).

구약 성경에서 가난은 하느님의 축복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종종 여겨졌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가난 자체를 악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마침내 예언자들의 가르침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영성적 가난이란 개념을 하나의 이상으로 여기고 더 이상은 별이나 저주로 간주하지 않도록 이끌었다.⁵⁶⁾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참 행복’과 아울러 정의롭게 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다. 우리는 자기가 쌓은 어떠한 공로에 의해서 정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우고 가난해졌기 때문에 정의롭게 되며, 그런 뒤에 비로소 우리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 오도록 허용할 수 있다. 참 행복의 의미는 우리가 율법을 고수함으로써가 아니라 신앙으로써 구원된다는 것이다. 참 행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여기는 것과 반대된다. 현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악을 단지 묵묵히 받아들일 뿐 의롭지 못한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은 아예 하지 않거나 거의 하지 않는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 권리를 유린당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음을 알고서 정의를 갈망한다. 따라서 예수

56) 같은 책(주13), 87쪽 참조.

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한 행복과 축복의 기준에 따라 행복해지고 축복받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예수님은 행복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불렀다.⁵⁷⁾

4. 나가는 말

도 신부는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 과정에서 부딪힌 무수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인 제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 항상 자기 견해를 내세우기보다는 봉헌된 평신도들의 전문 식견을 충분히 숙고하고 논의한 뒤에 성경과 신학 그리고 사회 교리 정신에 비추어 반대 세력을 설득하는 지혜로운 갈등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도 신부는 평신도나 노동자의 영성을 강화하는 것을 사목의 기본 원칙으로 정하였다고 평가된다.

신자들이 성경과 교리를 배우고 영성 훈련을 받을 때는 다수의 성경학자들과 영성 지도자들을 책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 신부로부터 성경과 신학 그리고 사회 교리에 기초한 영성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의 강의 내용이 명쾌하고 수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도 신부는 사제(목자)로서 삶과 평신도 교육에서 영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장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영성은 항상 성경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살아 있는 말씀과 행동하는 신앙이 되려면 반드시 공동선과 연대성 그리고 보조성의 원리가 상호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체적인 이슈(사례)를 통하여 보여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우리 주위에서 가장 소외(배제)되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 부단히 우선적인 선택(배려) 의무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하느님의 구원 사업인 인간에 대한 사랑, 예컨대 가난한 노동자나 이주 노동자 그리고 이주 여성(다문화가정)의 인권 개선에 모든 열정과 정성을 쏟았던

57) 같은 책(주 13), 105쪽 참조.

것이다.

무엇보다도 도 신부의 한국에서 선교사로서 소명은 한국 가톨릭교회에 대한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의 징표이었다. 나아가 도 신부가 한국 가톨릭 사제와 봉헌된 평신도에게는 영성의 스승이요, 노동사목의 개척자(founding father)의 소명을 완수하였던 광야에서 외치는 하느님의 목자이었다. 영성이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독점되는 사안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라도 노동을 통해 누구나 터득할 수 있는 내용임을 밝히고 있는 회칙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e*)의 마지막 장(chapter) 〈노동영성〉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한 사람이 도 신부이었다.

도요안 신부의 번역 및 발간 문건 목록

1998년

『경제세계화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Economic Globalization: Implications for the Church*)

『가톨릭 사회교리란 무엇인가?』(*Cos'è la DSC*)

『회칙 새로운 사태와 오늘』(*La Rerum Novarum oggi*)

『교회가 가르치는 노동의 의미-노동의 다양한 측면』(*Diversi aspetti del concetto di lavoro*)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Madre Teresa di Calcutta*)

『하느님의 평화의 도구』(*Instrument of God's Peace*)

『시장이 결여하고 있는 것들』(*The shortcomings of the market*)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을 위한 방편들, 그리고 그에 대한 윤리적 권고』(*Moral Imperatives for addressing Structural Adjustment and Economic Reform Measures*)

『대량실업과 사회안전망 확충』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교회』

『언제 끝날 것인가?』(*When will it end?*)

『가노청 순교복자 마르셀 갈로 전기』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비춰본 노동의 의미』(*Senso del lavoro alla luce della fede cristiana*)

『보조성의 원리』(*Il Principio di Sussidiarietà*)

1999년

- 『연대성의 원리』(*La Solidarietà*)
- 『노동윤리의 중심: 노동의 목적은 인간이다』(*Punto centrale dell'etica del lavoro: il fine del lavoro è l'uomo*)
- 『국제노동기구(ILO)의 산업재해 보고서』
- 『재화의 보편적 목적』(*La Destinazione Universale dei Beni*)
- 『노동의 의무와 휴식의 필요성』(*Rapporto tra dovere di lavorare ed esigenza di liberazione dal lavoro nel <riposo>*)
- 「주한외국인(필리핀)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한국 가톨릭교회의 노동운동 참여」
- 「교황 카를 보이티와」
- 「공동선의 원리」(*Il Bene Comune*)

2000년

- 「노동자들의 대회년 기념 비정규직 노동 실태조사」
- 『만인을 위한 노동: 연대와 정의의 길』(*Work for Everyone: The Way of Solidarity and Justice*)
- 『가톨릭 사회교리와 무역』(*Catholic Social Teaching and Trade*)
- 「가톨릭노동청년회 국제협의회(CIJOC) 회칙, 기본원칙선언, 정관과 기타 국제총회 관련문건」
- 『교회와 노동운동: 그 기원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Chiesa e movimento operaio: un percorso storico dalle origini al Concilio Vaticano II*)

『성서와 노동: 구원의 성서 메시지에 나타난 노동의 소외와 해방』(*Bibbia e lavoro: alienazione e liberazione del lavoro nel messaggio biblico della salvezza*)

『사회교리와 노동: 교회의 사회 가르침에 나타난 노동, 노동자, 노동자들의 연대』(*Dottrina Sociale e lavoro: lavoro, lavoratori e solidarietà dei lavoratori nel Magistero sociale della Chiesa*)

행복한 노동자로서 고 용동진 신부

1. 들어가는 말
2. 행복한 노동자 용동진과 도요안 신부의 만남
3. 노동 사제로서 용동진의 삶
4. 나가는 말

정영화(전문위원)

1. 들어가는 말

국민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 시대에 이르렀지만, 대다수 노동자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 이는 행복의 척도가 부에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⁵⁸⁾ 특히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행복감은 더 증대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 역설’(Easterlin's Paradox)⁵⁹⁾이 나타난다는 점을 상기할 것이다. 사실 한국의 노동자는 자신 이외에 조직과 가족을 더욱 중시하는 삶을 영위하였다. 노동자들이 직장 안에서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만족감이 높고(만족감), 일자리의 조직 안에서 인정받으며(소통, 수용성), 노동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을 실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이 느끼는 행복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동태적이고 가변적이지만,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더 체증(遞增)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노동의 행복이란, 일이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며, 일과 매개되어 있는 유익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함으로써 노동자의 자아실현과 자존감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과연 오늘날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직장 노동 현실이 존재하는지?’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이 날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약 231만 명이 정신 질환 때문에 진료를 받고 있는데, 이는 2004년 대비 1.5배나 증대된 숫자이다.⁶⁰⁾ 더구나 한국의 노동자 대부분은 그의 일터에서 연평균 2,090 노동 시간으로 주당 40.2시간을 보내고 있다.⁶¹⁾ 따라서 노동자들이 자기 직장이나 일

58) 한국의 행복지수는 OECD 36개 국가 가운데에서 27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OECD(2013), OECD Better-Life Index.

59) 이는 1974년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Richard Easterlin)이 50년 동안 서양인의 실질 임금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은 더 증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사람은 소득이 어느 정도 상승하면 행복감이 높아지지만,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 이상 행복감이 증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60) 이승철 외, “건강한 기업의 조건: 근로자의 정신건강”(CEO Information 제860호), 삼성경제연구소, 2012.7.18.

61) OECD, *OECD's Social Policy Brochure for Korea*, 2011.

터에서 얻는 보람과 성취감 등은 가족과 생활관계까지 파급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행복감이 배가되는 효과가 있다. 노동자의 행복은 그의 자아실현과 건강한 가족관계, 특히 직장의 생산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이 요구하는 재화의 분배만이 아니라, 인간이 재화를 생산하는 조건도 정의의 법칙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 조직과 구조가 노동자 개개인의 인간 존엄성을 위태롭게 만들거나, 책임 의식을 약화시키거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다면, 비록 거기서 막대한 재화가 생산되고 정의와 형평의 규범에 따라 분배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경제 질서는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다.⁶²⁾

비록 노동자 출신의 노동 사제로서 꿈꾸었던 많은 일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선종하고 말았지만, 용동진 신부가 오랫동안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설정했던 ‘행복한 노동자’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만약 노동자 용동진에게 도요안 신부가 없었다면, 그에게 노동 사제의 희망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도 신부의 영성 훈련이 평신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청년 용동진이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을 입학하기까지 어떤 노동자의 삶을 살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의 일기(1978~1994)⁶³⁾ 등을 기초하여 작성하였다.⁶⁴⁾ 청년 용동진이 노동자에서 사제 서품을 받을 때까지 그의 현실에 대한 이해와 행복한 노동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어떻게 체험했는지 살펴본다.

62) 요한 23세 회칙, 「어머니요 스승」(*Mater et Magistra*), 제82-83항 참조.

63) 그의 일기는 1978년부터 1994년까지 작성되었으나, 비교적 신앙생활과 노동 현장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원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64) 필자가 처음 용동진 신부를 만난 것은 1999년 10월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석했던 종로성당 회의실이다. 당시 용 신부가 도요안 신부의 후임으로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종전의 박영기 교수, 손창희 교수, 김어상 교수 등과 다음 세대를 잇기 위하여 필자와 김정한 박사 두 사람을 초대하였다.

2. 행복한 노동자 용동진과 도요안 신부의 만남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태 26,11; 마르 14,7). 예수님은 가난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 때문이라고 하시거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탓하지 않으셨다. 다만,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산상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제시하셨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마라. 땅에서는 썩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썩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마태 6,19-21)

대다수 인간은 항상 자신들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노동자 용동진은 항상 가족에 대한 책임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왔다. 특히, 그는 병고에 시달리는 형과 고단한 삶을 살아 온 모친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뺏속깊이 새기면서 그들의 고통을 자기 십자가로 받아들였다. 그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사실상 가장 노릇을 하였다. 그의 노동이 가족의 생계를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그는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 부단히 학업에 대한 갈망과 가난을 극복하고자 내적 갈등을 느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경험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반면에,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보물을 쌓는 일은 애시 당초 잊고 살아가고 있다. 하느님의 은총 자체는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우리는 자신을 내어주고 소유한 것을 내어줌으로써 우리 자신을 비울 때 비로소 은총을 받을 수 있고, 그 은총을 쌓아 둘 수 있는 능력을 지닐 것이다.⁶⁵⁾ 여기서 도요안 신부는 우리 교회가 궁핍하게 사는 이들을 찾아보고 알아내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자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65) 도요안,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가톨릭출판사, 2009, 13쪽.

즉,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기꺼이 돈이나 재화를 제공하는 외적이고 물질적인 기부뿐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또 소외당하는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고 마음을 여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교황 레오 13세도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1891. 5. 15.)에서 “교회의 모든 배려가 지상의 현세적 삶에 속하는 것을 무시하면서까지 오로지 영혼의 구원에만 전적으로 쏠려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제27항)고 경고하였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노동자들이 그들의 가련한 처지에서 헤어나고 그 상태가 호전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하느님의 영성(체험)⁶⁶⁾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도요안 신부는 노동자들에게 하느님의 체험을 항상 강조하였다. 청년 용동진은 열일곱 살에 돈보스코청소년센터에서 도 신부를 만나서 세례를 받았다. 그 후에 그는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금형 기술자로 취업하여 사도직 활동을 계속하였다. 용동진은 도 신부를 만난 뒤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 용동진은 한낱 금형 노동자에 머물지 않고, 1981년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 회장이 되어 가톨릭노동청년회의 근본정신과 가난한 노동자로서 내적 영성이 나중에 신학교 교육과 사제로서 임무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그는 다른 노동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난한 노동자의 사회적 영성을 통해서 사제의 삶을 준비하였다. 비록 그가 가난한 노동자로서 가족과 형제자매들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데 자신을 희생양으로 생각하였으나, 도 신부의 따뜻한 배려와 후원을 받으면서 신학교에 진학하여 사제가 될 수 있었다.

한편, 도 신부는 1968년부터 1982년까지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남부연합회 담당 신부를 역임하였다. 1970년대 유신 헌법의 절대 권력을 이어받은 1980년대 신군부도 열악한 노동 여건에서 노동 운동을 가일층 탄압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노동 운동은 대화와 타협보다는 투쟁과 대결이 우선시되었다. 물론 가톨릭교회 안에서도 복음 정신과 교회 가르침을 따라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강경 투쟁으로 반대

66) 영성의 모델은 내적 영성과 창조의 영성 그리고 사회적 영성을 들 수 있다.

세력을 무력화하는 해방 신학의 투쟁 방향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교회 안팎의 갈등 상황에서 도 신부는 평신도에게 영성 훈련을 통하여 “관찰-판단-실천”의 방법에 의하여 평신도가 깨어 있는 것을 중시하였다.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노동 환경 속에서 도 신부는 노동자들에게 복음과 사회 교리를 바탕으로 가톨릭노동청년회의 근본정신을 노동 현장에 구현할 수 있는 빛과 소금과 같은 투사로 살아가도록 가르쳤다.

3. 노동 사제로서 용동진의 삶

교황 레오 13세도 회칙 『새로운 사태』에서 “교회는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처지와 가난이 하느님 앞에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부요하셨지만 가난하게 되셨고’(2코린 8,9)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하느님의 자신이시지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셨다. 더욱이 그분은 노동하심으로써 생애의 대부분을 보내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이러한 모범을 친히 보여주신 하느님을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진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진정한 존엄성과 고귀함은 전적으로 도덕 곧 덕행으로 응답하는 태도에 있다. 덕은 높은 신분의 사람이건 낮은 신분의 사람이건, 부유한 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쌓을 수 있는 공동의 유산이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영원한 행복의 보상은 오직 덕을 쌓는 행업에만 베풀어진다.”(제17항)고 하였다.

지난 100여 년 동안 교회가 신중하게 사회 교리를 펼쳐 온 이유가 그리스도의 영성이 공동선, 공정한 재분배,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배려와 관련되어 있다. 더구나 가톨릭의 영성은 시간, 장소, 사람이란 구체적인 환경과 현실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의 영성이 실제 유의미하고 유익하려면 우리 자신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해야 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현상 유지’를 비판하고, 우리를 질책하여 불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영성의 사회적 측면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복음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노동자 용동진은 자기 가족과 동료 노동자들에게 부단히 따라오는 가난과 질병 등 생활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⁶⁷⁾ 그는 모친에게 효성이 극진한 아들이고, 동기간에 매우 자애로운 평범한 인간이었다. 특히, 그는 모친과 형제 자매를 대할 때에는 항상 애통한 심회를 토로하고, 가난 자체를 뺏속까지 통감하였다. 그 때마다 용동진은 ‘자신이 모친에게 가장 큰 불효를 하는 것이 아닌지?’라고 스스로 반문하였다. 신학생 용동진은 스스로에게 ‘왜 사제가 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1993년 9월에 종로본당에서 첫 사목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톨릭노동청년회 담당 신부를 겸하였다. 그러나 용 신부는 사목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일과 사람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제이었다. 용 신부가 이전에 노동자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그러한 까닭으로 용 신부는 사제직을 수행할 때 자기 건강에 더 유의했어야 했다.

67) 용동진이 신학교 재학 중에 여동생의 결혼식 비용을 마련하는 데 실험을 통해서 차용하는 문제로 구요비 신부에게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언제나 가난한 내가 겪는 일이니 체념했다. 실험에도 안 되니 ○○한테 우선 빌려 달라고 하고 방학 때라도 가서 일해 주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겠다.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니 어렵다. 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수밖에… (중략) 주님, 정말 제가 당신을 따를 수 있는지요? 너무 억지 아닙니까? 당신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작은 일에도 이렇게 갈등하는 자신이 우습습니다. 무엇을 하려 하느냐? 정말 내가 여태까지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한 철부지였단 말인가? 아니면 너무 극단적인 해석인가? 부모에 대한 관계 어떻게 완전히 버릴 수 있단 말인가?”(1987년 3월 29일 일기에서)

4. 나가는 말

도 신부가 청년 용동진을 사제의 길로 이끌었던 이유는 자신이 수도회 신부로서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가급적 신속하게 한국인 노동 사제를 양성하고자 함이었다. 물론 가난한 소년들에게 노동 영성에 기초하여 교육과 기술을 배우게 하는 살레시오회의 기본 정신과 원칙에도 부합하였다. 주님의 은총으로 노동자 용동진은 자신의 금형 기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또 다른 노동자들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는 행복한 노동자이었다. 더구나 도 신부의 영성과 교리 교육을 통해서 가톨릭노동청년회의 기본 정신과 원칙에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던 노동자 용동진이 사제가 된 것은 도 신부의 변함없는 사랑과 영성 훈련의 결실이었다.

-MEMO-